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 33

생태적 회개 - 신앙의 중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우리 교회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회칙이 반포된 지 이미 6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7년간 계속해서 이 회칙의 정신이 교회 생활의 핵심적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재의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태적 회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칙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 문제와의 연관 안에서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둔 첫 번째 교황 회칙이라는 것입니다. ‘회칙’은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사목 문헌 중에서 구속력과 권위가 가장 높은 문헌의 형식입니다. 이전에도 교회가 환경을 지킬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처음으로 ‘회칙’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헌 형식을 빌어 환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환경 문제는 교회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방 정교회의 선례에 따라 회칙이 반포된 2015년부터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일상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

조물을 기억하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 이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교황님들의 환경에 관한 말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입니다. 이 담화문은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된 문헌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문헌 전체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환경 문제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주제로 다룬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기후 위기가 덜 심각했던 당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미 환경 문제의 중요성 및 시급함을 인식하고, 인간에 의한 자연 훼손은 “자연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결여”가 가져온 “도덕적 위기”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앙인들의 투신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직접 뻗어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신앙 행위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통찰을 우리 안에 다시 새기면서 다 함께 생태적 회개의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곶벤틀루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